

삼성 KPMG

ISSUE MONITOR

July 2016

삼성KPMG 경제연구원

브렉시트,
잠재적
위험과 기회



Contacts

The contacts at KPMG in connection
with this report are:

김광석
수석연구원

Tel: +82 2 2112 7438
gwangsukkim@kr.kpmg.com

조민주
연구원

Tel: +82 2 2112 7589
minjoocho@kr.kpmg.com



Contents

	Page
Executive summary	3
브렉시트의 배경과 경과	4
(1) 브렉시트의 배경	
(2) 브렉시트의 경과	
브렉시트가 영국에 주는 파급 영향	6
(1) 경제적 영향	
(2) 규제의 변화	
(3) 영국의 지위 변화	
브렉시트가 한국경제에 주는 파급 영향	13
(1)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2)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3) 경제정책에 미치는 영향	
한국기업의 대응책	16
(1) 기업 내 RC(Resilience Committee) 구축	
(2) 브렉시트 대응 체크리스트 확립	
(3) 영국의 세제변화 및 환율 변화에 대응	
(4) 산업별로 브렉시트의 파급영향에 대응	

본 보고서는 삼정KPMG 경제연구원(주)과 KPMG member firm 전문가들이 수집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보고서에 포함된 자료는 해당 분야 정보의 완전성,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거친 것은 아닙니다. 본 보고서는 특정 기업이나 개인의 개별 사안에 대한 해답을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며, 구체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당 법인의 전문가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보고서는 삼정KPMG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배포, 인용, 발간 복제할 수 없습니다.

Executive Summary

브렉시트는 영국 및 유럽 경제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를 변화시킬 2016년 최대 불안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우선, 브렉시트는 영국에 경제적 하방 압력을 가하고, 대대적인 규제 변화를 야기시키며, 영국의 위상을 크게 변화시킬 전망이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경제에도 금융불안, 실물경기 위축, 경제정책 변화 등의 파급영향을 안길 것으로 전망된다. 브렉시트의 경과 과정에서 기업의 사업환경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이에 따라 기업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본 보고서는 기업들에게 RC(Resilience Committee)를 구축하고, 브렉시트 대응 체크리스트를 확립하며, 산업별로도 맞춤형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준비된 기업에게는 브렉시트의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Executive Summary

■ 브렉시트의 배경과 경과

- 브렉시트는 이민자 문제, 과도한 분담금 대비 EU 내 영국의 약한 위상 등 주로 정치적인 이유에서 제기되었으며, 향후 영국이 공식적인 탈퇴 의향서를 EU에 제출하면 리스본 협정 50조에 의거해 2년 간의 협상 과정을 거쳐 EU에서 정식으로 탈퇴

■ 브렉시트가 영국에 주는 파급 영향

- **경제적 영향** : 세계 주요 경제기관들이 브렉시트 이후 영국경제가 하방 압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
 - ✓ 단기적으로는 영국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영국 파운드화의 가치가 하락하고, 장기적으로는 관세절벽에 따른 수출 감소가 우려되는 등 영국경제의 침체 가능성이 존재
- **규제의 변화** : 규제 환경 변화에 따른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 될 전망
 - ✓ 브렉시트 이후 국가 간 법률 구조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규제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지고, 법적 환경의 변화가 기업의 전략적 선택에 영향을 미칠 전망
- **영국의 지위 변화** : 글로벌 금융 허브로서의 영국의 위상 약화 우려
 - ✓ 브렉시트가 실현되면서 세계 금융시장에서 영국의 시장점유율 하락 예상되고, 유럽 내 주요 국가들이 영국과의 공급 사슬 구조가 악화되면서 영국의 유럽 내 경제적 영향력이 축소될 전망

■ 브렉시트가 한국경제에 주는 파급 영향

-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 국내 금융시장에서 영국계 자금의 직접 유출뿐만 아니라 세계 금융시장 리스크 확대에 따른 해외 자금의 유출 우려
-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 영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의 경기침체로 인해 한국의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
- **경제정책에 미치는 영향** : 브렉시트가 가져온 금융 및 실물경제의 불안 요소들이 한국의 경제정책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한국기업의 대응책

- 변화하는 환경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기업의 생존을 위해 기업 내 RC(Resilience Committee) 구축
- 근로자, 공급자, 비즈니스 모델, 시장 등 폭넓은 경영환경과 경제적 파급영향에 대한 고려를 통해 브렉시트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확립
- 관세율, 부가가치세율 등 영국의 세제변화를 주시하고, 헷징 등을 통해 환율 변화에 대응
- 산업별로 브렉시트의 파급영향에 대해 선제적이고 차별적인 대응

브렉시트, 잠재적 위험과 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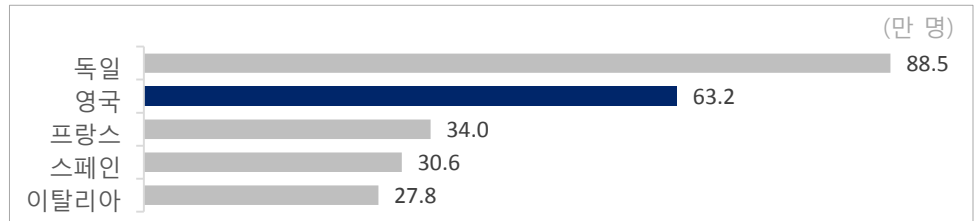
브렉시트의 배경과 경과

(1) 브렉시트의 배경

캐머런 현 영국 총리는 2015년 5월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EU 내 영국의 회원국 지위 조정을 위한 협상과 더불어 영국의 EU 탈퇴에 대한 국민투표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후 보수당은 총선에서 과반의석을 획득했고, 캐머런 총리는 정치적 승리를 확신하며 브렉시트 여부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했다.

브렉시트 찬성 의견은 이민자 문제, 과도한 분담금 대비 EU 내 영국의 약한 위상 등 주로 정치적인 이유에서 제기되었다. 실제로 영국 내 이민자 순유입 규모는 2014년 약 31만 명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이민자 복지지출에 따른 재정압박과 노동시장의 경쟁 심화로 반(反)이민자 정서가 만연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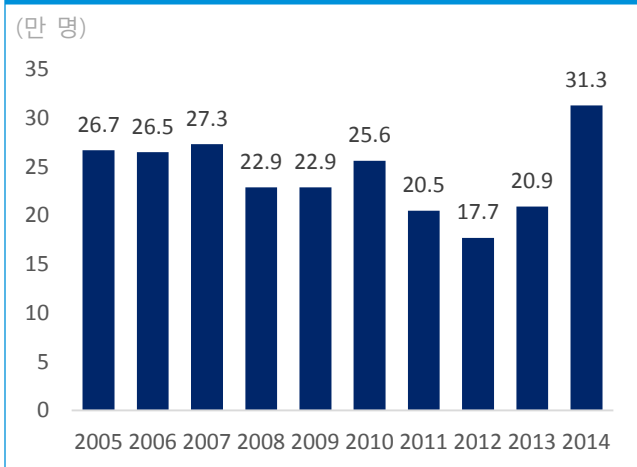
< EU의 이민자 규모 현황 (2014) >



Source: EUROST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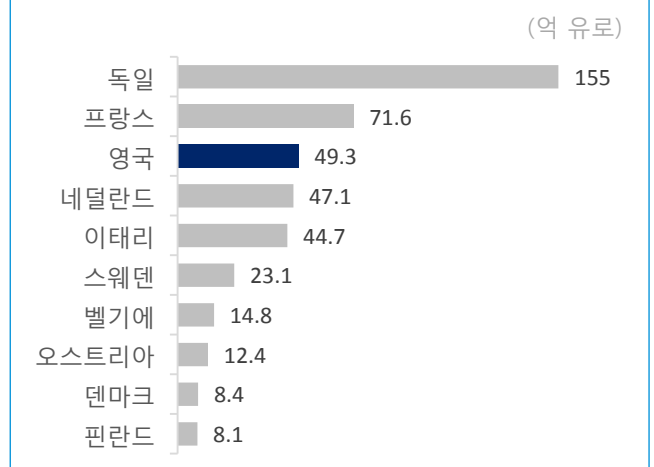
한편, 영국의 EU 재정에 대한 순기여액은 독일, 프랑스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적 부담에 비해 상대적으로 EU 내에서의 위상이 약하다고 여기고 있다. 또한 EU법이 영국법보다 상위인 법 체계로 인해 EU 의회의 결정사항이 영국 경제에 불리하게 작용하더라도 거부하기가 어렵다. 실제로 영국이 반대하거나 기권한 법안이 통과된 비율은 2004~2009년 중 2.6%에서 2009~2015년 중 12.3%로 크게 증가했다.

영국의 이민자 순유입 규모



Source: 영국통계청(ONS)

2014 EU 예산 순기여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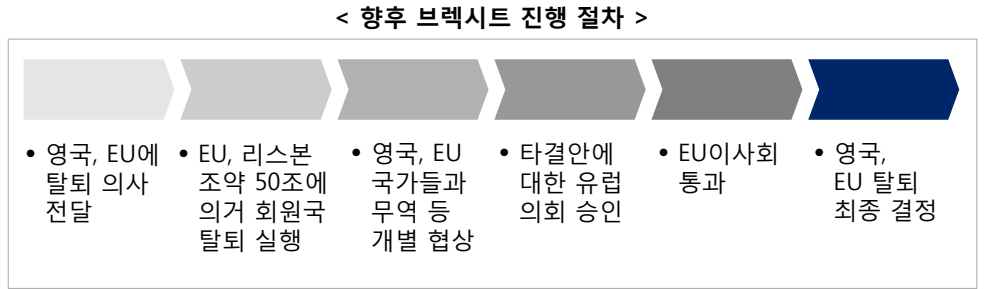
Source: 유럽위원회(EC)

브렉시트, 잠재적 위험과 기회

(2) 브렉시트의 경과

영국이 공식적인 탈퇴 의향서를 EU에 제출하면 리스본 협정 50조에 의거하여 다른 EU 회원국과 2년에 걸쳐 관세, 국가 간의 이동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고, 협상 기간인 2년이 지나면 EU에서 자동으로 탈퇴된다.

“ 리스본 조약 50조에 의거하여 2년 간 다른 EU 회원국과의 협상을 거쳐 최종 탈퇴 여부를 결정 ”



Source: 유럽위원회(EC),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브렉시트 이후 영국이 선택할 수 있는 예상 시나리오는 크게 4가지로 나뉜다. 첫째, 노르웨이처럼 EEA 회원국으로서 EU 시장에 참여하거나, 둘째, 스위스와 같이 EFTA 회원국으로 남는 방법, 셋째, 터키처럼 EU와 관세동맹을 맺는 방식, 마지막으로 EU와 EEA를 모두 탈퇴하고 WTO 회원국으로서의 지위만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예상 시나리오

현재	탈퇴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50%; width: 60px; height: 60px; margin: 0 auto; background-color: white;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p style="margin: 0;">현재 (비교 대상)</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EU분담금 지급 이민자 수용 면세, 관세 동맹 적용 (영국 법상 근본적인 변화는 없음) 관세 장벽 없음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50%; width: 60px; height: 60px; margin: 0 auto; background-color: white;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p style="margin: 0;">노르웨이 방식 (EEA 회원국)</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EU시장에 참여하지만, EU의 FTA는 참여불가 EEA 보조금 및 EU운영비용 지급 대부분의 EU기준 준수 EU 부가가치세 적용 지역에서 제외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50%; width: 60px; height: 60px; margin: 0 auto; background-color: white;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p style="margin: 0;">스위스 방식 (EFTA 회원국)</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유무역 장려 협의기구에 참여 협정부문에 대한 EU 기준 준수 신규 EU가입국에 대한 보조금 및 EU운영비용 지급 EU 부가가치세 적용 지역에서 제외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50%; width: 60px; height: 60px; margin: 0 auto; background-color: white;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p style="margin: 0;">터키 방식 (관세 동맹)</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EU와의 관세동맹 가입 연합 내에서 이동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무관세 연합으로 들어오는 재화에 대해서는 역외공통관세를 부과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50%; width: 60px; height: 60px; margin: 0 auto; background-color: white;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p style="margin: 0;">WTO (최혜국 관세 적용)</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국이 EU와 EEA를 모두 탈퇴 EU와의 구체적 협상이 없는 WTO 회원국의 지위를 갖게 됨 국제기준 적용, EU시장 진입시 EU기준 준수

Source: KPMG Global

브렉시트, 잠재적 위험과 기회

브렉시트가 영국에 주는 파급 영향

(1) 경제적 영향

“ 브렉시트는 영국 경제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 ”

유럽연합에서 탈퇴한 영국의 경제는 침체국면에 처할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 주요 경제 기관들은 브렉시트 이후 영국경제가 하방 압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먼저, OECD는 2020년까지 실질 GDP가 -3.3%의 감소폭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IMF도 -1.5%~9.5%의 실질GDP 감소폭을 가져올 것이라고 판단했다. 영국 재무부의 분석 결과에서도 브렉시트 이후 향후 15년 뒤에는 실질 GDP가 EU에 잔류했을 때와 비교하여 -3.8%~-7.5% 감소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각 기관들은 수출 침체, 투자부진, 노동력 축소, 가구 소득 감소 등의 원인으로 브렉시트가 영국경제에 상당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우선, 영국에 투자했던 자금의 유입이 크게 축소되면서, 기업들의 투자가 크게 위축될 것이다. 투자는 고용의 선행변수로서, 결국 고용을 크게 위축시키고 이에 따라 국민소득을 감소시키며, 나아가 소비부진으로 까지 연결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EU와의 역내교역에서 누려 왔던 무관세 혜택이 상실되고 최혜국대우 관세율로 대체되면서 수출에 타격이 클 전망이다. 더욱이, EU의 FTA 체결이 늘어날 경우, 상대적으로 영국의 수출품목들은 가격경쟁력을 잃어 수출이 크게 부진하게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영국 기업들은 그 동안 관세 없이 거래했던 EU 회원국과 무역 통상 규정을 재협상하는 과정에서 협상력을 잃고, 공급사슬에서의 경쟁력을 잃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EU 회원국 외에도, EU가 FTA를 체결한 국가들과의 교역에도 악영향이 미치면서 영국의 대외경제에 상당한 악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브렉시트가 영국 GDP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분석

기관	실질 GDP 감소폭	기간	세부 내용
OECD	-3.3%	2020년	▪ 가구당 소득 2,200파운드 감소
	-2.7% ~ -7.7%	2030년	▪ EU와의 교역관계 협상이 노르웨이 방식(EU내 상품과 서비스 이동 자유화)일 경우 GDP 2.7% 감소 ▪ EU와의 교역관계 협상이 영국에 불리하게 이뤄질 경우 GDP 7.7% 감소
JP Morgan	-1.0%	브렉시트 이후 1년 간	▪ EU와의 교역관계 재협상 과정에서 불확실성으로 인한 GDP 감소
Societe Generale	-4.0% ~ -8.0%	브렉시트 이후 5년 간	▪ EU와의 교역관계 재협상에 5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
Morgan Stanley	-1.5% ~ -2.5%	브렉시트 이후 2년 간	-
IMF	-1.5% ~ -9.5%	-	-

Source: 각 기관 자료를 이용하여 삼성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브렉시트, 잠재적 위험과 기회

브렉시트가 영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 영향과 장기적 영향으로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다.

“ 영국 경제는 단기적으로 금융불안, 장기적으로는 수출 부진 및 노동력 부족 등의 구조적 문제로 연결될 전망 ”

단기적 영향 : 첫째, 영국경제에 관한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경제주체들은 달러, 엔화, 금, 미국 국채 등 안전자산을 선호하게 된다. 따라서 영국 파운드화 가치는 10~25%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소비자물가가 0.5~1.5% 상승할 전망이다. 교역조건 악화로 수입물가가 상승하고, 생산자물가 상승으로 연결되어 소비자물가가 상승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영국의 단기적 경제충격을 극복하기 위한 금융정책으로 금리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넷째, GDP는 첫째 1년 동안 평균 0.5~1.5%의 국내총생산 증가폭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적 영향 : 먼저, 브렉시트 이후 관세절벽으로 인한 수출감소가 전망된다. 관세율 또한 최대 4.4% 평균 상승할 전망이다. 이민자 수용이 줄어들면서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그만큼 임금이 상승하게 될 것이다. 경기부양을 위해 정부예산이 과다 지출 되면서 예산 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GDP의 0.7% 가량의 규제 비용이 축소되고, 브렉시트 이후 1년 동안 국내총생산의 4~6% 축소될 전망이다. 수출, 투자, 노동력, 예산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되고 서로 악순환 되면서 영국경제침체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브렉시트가 영국에 주는 경제적 영향

구분	주요 영향	
단기적 영향	환율	파운드 가치 10~25% 하락
	물가	소비자물가 0.5~1.5% 상승
	정책금리	최대 1%까지 정책금리 인상
	GDP	첫해 1년 동안 평균 0.5~1.5% 국내총생산 증가폭 축소
장기적 영향	무역	브렉시트 이후 5~10% 축소
	관세	브렉시트 이후 최대 4.4% 평균 관세율 상승
	노동력	2021년까지 노동력 1~2.5% 축소
	임금	임금이 0.2~0.6% 상승(몇몇 산업 내 저숙련 일자리 기준)
	정부예산	매해 GDP의 1~2% 수준의 정부 예산 부족
	규제	GDP의 0.7% 가량의 규제 비용 축소
	GDP	1년까지 국내총생산의 4~6% 축소

Source: KPMG Global

브렉시트, 잠재적 위험과 기회

(2) 규제의 변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 국가들은 은행의 자본이나 유동성 및 레버리지 비율에 대한 요구 조건 등을 제시하며 규제를 시행했다. 그리고 글로벌 및 자국 내 규제감독기관이 조성한 복잡한 규제 환경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비즈니스 모델도 변화해 왔다.

“ 규제 환경 변화에 따른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 될 것으로 전망 ”

영국의 금융당국도 글로벌 건전성 기준과 특히, EU의 금융규제에 부합하고자 기존의 관리·감독 제도를 변경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브렉시트로 인해 영국의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은 더 이상 EU에서 정한 규제에 대해 준수해야 할 의무가 사라지게 되었다.

물론, 대체로 영국의 금융안정성을 감독하는 규제들은 G20와 FSB(금융안정위원회)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브렉시트가 금융안정성 규제에 미치는 영향은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브렉시트 이후 국가 간 법률 구조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규제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러한 법적 환경의 변화는 기업의 전략적 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영국 시장의 회복탄력성(resilience)에 따라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의 파급 영향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규제 환경 변화와 관련된 주요 이슈	
<p>법률 구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경 간 법률 구조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 확대 • 유럽 내 非 EU 기업들의 사업소재지 선정 및 시장 확보 전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 <p>유로 시장의 변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국에서 유로화의 청산·결제 등 금융 거래에 어려움 발생 시, 세계 금융 허브로서의 위상 약화 가능성 <p>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접근 방식의 괴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의 기업지배구조는 영국만큼 강하게 적용되지 않았으므로, 브렉시트 이후의 변화에 크게 좌우되지 않을 전망 • 對영국 고객과 對EU고객 조항 간 불일치 문제 <p>고객의 교역 조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와의 수출입 관련 리스크가 존재하므로, 경제 및 시장 전반의 건전성에 타격을 미칠 가능성 존재 	<p>글로벌 규제기준에 부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국의 금융감독 규제는 대부분 G20과 FSB의 글로벌 기준을 충족해 금융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전망 <p>더욱 엄격한 규제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A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본요구수준 설정 <p>영국이 도입하지 않을 EU규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년부터 EU에서 시행된 자본요구명령 (CRD IV bonus cap), 금융거래세 등 <p>리스크 평가에서 EU보다 강력한 스탠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A의 요구수준이 더 엄격하기 때문에, 영국계 은행과 투자회사에게 요구자본 수준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 <p>ECB의 승인 지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CB EU 내에서 규제가 필요할 경우, 영국 중앙은행의 승인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

Source: KPMG Global

브렉시트, 잠재적 위험과 기회

EU 탈퇴로 인해 영국은 금융산업에서 많은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EU 내 금융거래에서 영국의 비중은 다른 EU 회원국의 비중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만큼 브렉시트의 충격은 더욱 클 전망이다.

“ 브렉시트에 따른 금융규제 환경의 변화가 영국 금융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 존재 ”

EU 집행위원회는 단일시장 내 금융산업 활성화를 위해 1999년 금융서비스 실행계획(Financial Services Action Plan)을 시행하였다. 이 시행계획에 따르면 역내에서는 모회사 국적을 기준으로 현지에 진출한 자회사가 규제감독을 받게 되어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금융규제환경이 자유로운 영국에 모기업을 둔 금융기업의 역내 회원국 진출이 수월하였다.

그러나 영국의 EU 탈퇴로 영국에 모기업을 둔 금융회사의 對EU 금융서비스 제공에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영국은 전 세계 유로화 거래의 약 45%를 담당하고 있고, 이 중 1/3 정도가 유로화 관련 거래인만큼 EU 탈퇴에 따라 외환거래에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밖에 영국의 반대로 지연되었던 금융거래세(Financial Transaction Tax)의 도입 등 향후 영국 금융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EU의 조치에 대해 영국의 대응 수단이 사라질 수 있다. 이는 영국 금융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영국의 은행산업과 자본시장에서 예상되는 규제 변화

영국이 이미 시행했거나 향후 시행 예정인 규제

- 자본요건명령(CRD IV) 준수 레버리지 비율, 유동성 요건
- 회수 및 이행 계획 (Recovery and resolution planning)
- 용도 제한(Ring-fencing)
- 벤치마크(Benchmarks)
- 예금 보증(Deposit guarantees)
- 고위간부제도(Senior Managers Regime)
- 은행기준위원회/FICC 시장위원회
- 관리감독의 강도(필라 2 제도)
-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 금융상품시장개혁(MiFID)

영국이 시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규제

- 거대 금융기업
- 모기지 신용(Mortgage credit)
- 파생 상품
- 신용평가기관
- 시장지배력 남용 체제
- 지급준비금(Solvency II)
- 유로화 결제 지역의 국제은행업무
- 보험업지급준비금 제도(옵니버스 II)
- 주식예탁규제(CSDR)
- 이전가능증권에 집합투자(UCITS)
- 불법자금 세탁
- 은행 기본계정
- 지급결제 원칙
- 보험 판매

영국이 시행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규제

- EU국가 시행 자본요구 명령 (CRD IV bonus cap)
- 유럽 규제감독기구의 권한 강화
- 금융거래세 부과

Source: KPMG Global

브렉시트, 잠재적 위험과 기회

(3) 영국의 지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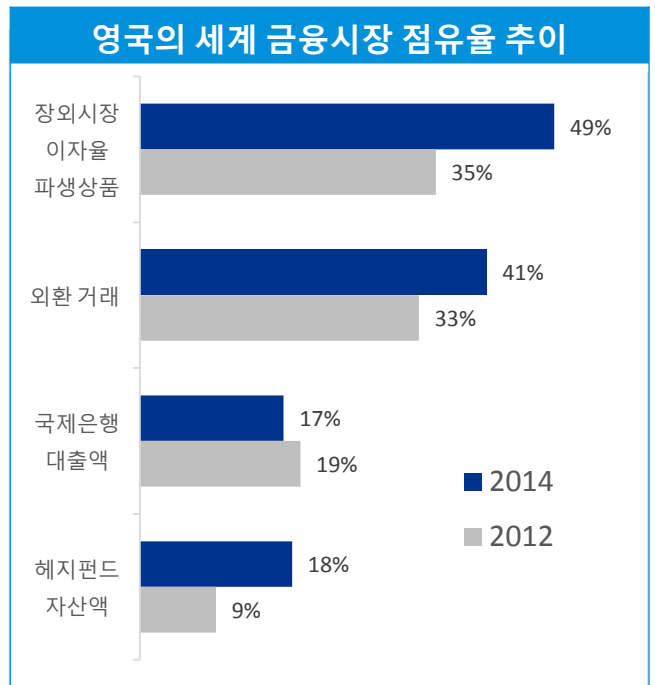
첫째, 영국의 글로벌금융허브로서의 역할이 축소될 전망이다. 영국의 금융산업은 GDP의 7.6%, 고용의 4%를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EU 금융시장의 기본법은 동일인 원칙(Single Passport Rule)을 적용하고 있다. 즉, 유럽연합 내 어느 한 국가의 감독기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을 경우 그 밖의 회원국에 지점을 개설시 해당국에 추가적인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 법안에 따라 영국은 유럽연합 내 다른 지역에 비해 금융규제가 자유로운 편이기 때문에 유럽의 금융사들이 영국에 자회사를 설립한 후 여러 국가에서 영업을 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브렉시트가 실현되면서 영국 금융기관이 동일인원칙 (Single Passport Rule)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며, 영국 금융산업에 타격이 가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영국은 세계 금융 센터로의 지위를 잃고, 세계 금융시장에서의 점유율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 ”

영국은 현재 세계 금융강국 순위에서 1위에 위치하고 있다. 경제대국인 미국이나 일본보다도 우위에 있고, 23위에 해당하는 한국에 비하면 금융기관 분포, 금융시스템의 선진화정도, 금융시장 점유율 등에서 상당히 금융산업이 우위에 있다. 영국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장외시장 이자율 파생상품이 2001년 35%에서 2014년 49%로 확대되었고, 외환거래에 있어서는 33%에서 41%로 확대되었다. 그 밖에 국제은행 대출액(17%), 헤지펀드 자산액(18%) 등 세계 금융시장에서 영국은 상당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결국, 브렉시트로 인해 이러한 영국의 금융시장의 지위가 흔들릴 것으로 전망된다.



Source: 2015 Global Financial Centers Index, WEF



Source: WSJ,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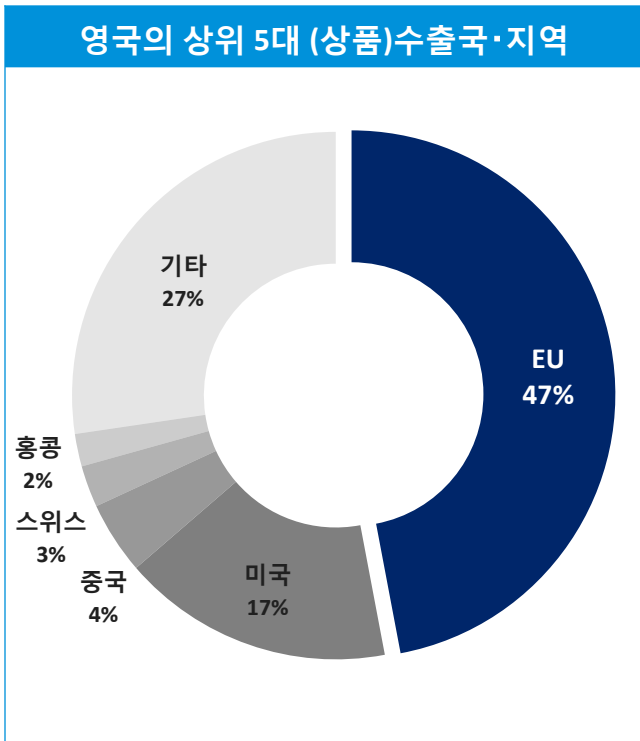
브렉시트, 잠재적 위험과 기회

둘째, 영국의 유럽 내 경제적 영향력이 위축될 전망이다. 영국은 독일과 함께 유럽연합의 정치적·경제적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고 있다. 영국은 글로벌 금융허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경제적 영향력이 높은 국가이며, 유럽연합 내 상대적으로 높은 분담금을 내면서 독일, 프랑스와 함께 정치적 공조체제를 강하게 유지해 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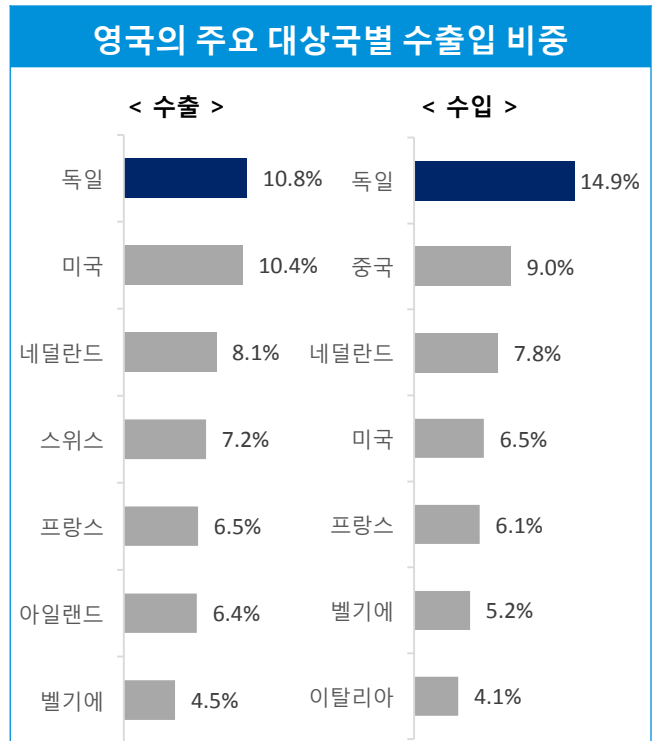
“ 유럽 내 주요 국가들이 영국과의 공급사슬 구조가 악화되면서, 영국의 유럽 내 경제적 영향력이 축소 ”

영국의 수출지역 중 EU가 47%를 차지 하고 있어, 영국의 EU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브렉시트의 이행으로 관세부담이 가중되고, 영국의 EU수출이 감소하게 되면서 유럽 내 경제적 영향력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브렉시트 시, EU로 수출하는 상품 중 35%에 4% 이상의 관세 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OpenEurope, 2016).

수출 대상국을 기준으로 보아도, 영국의 상위 7대 수출 대상국 중에는 미국이 유일하고, 그 외에는 모두 유럽국가들이다. 수입의 경우 중국과 미국이 각각 상위 2 위, 4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여전히 유럽국가들에 수입을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소비재 수출입도 포함되지만 자본재와 중간재 교역을 고려할 때, 유럽과의 공급사슬 구조가 영국경제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음을 추론 가능하다. 따라서,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공급사슬 구조가 악화되고, 유럽국가들은 공급선을 영국 외 기타 국 가로 전환하게 되면서 유럽 내 경제적 영향력이 위축될 것으로 판단된다.



Source: 무역협회,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Source: KOT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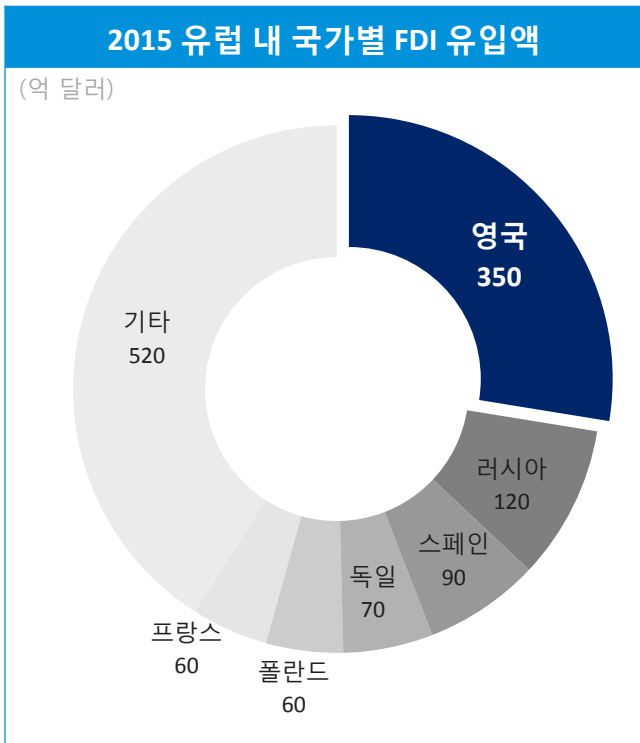
브렉시트, 잠재적 위험과 기회

“ 영국의 금융산업 위축, 유럽 내 영향력 축소, 수출 감소 등의 원인으로 투자 매력도 잃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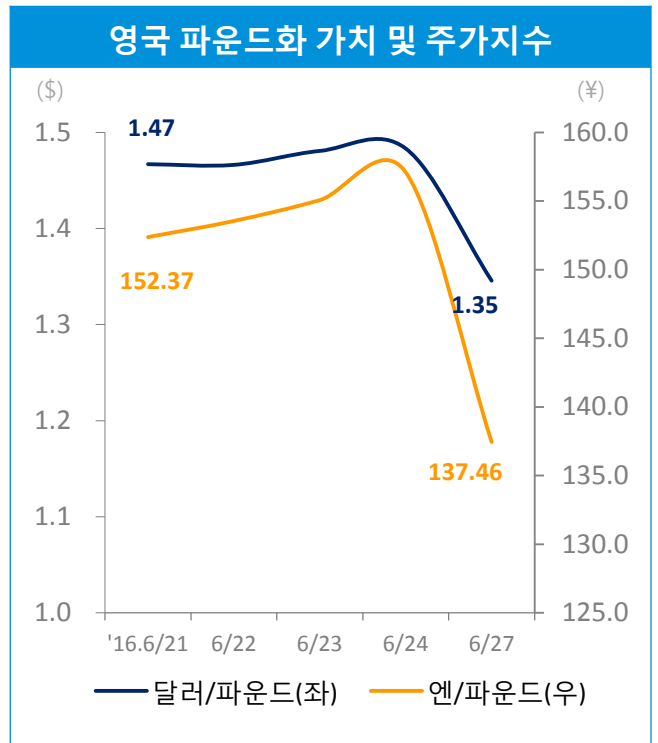
셋째, 유럽의 투자대상지로서의 매력을 잃게 될 전망이다. 영국은 세계 각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유럽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특히, 영국은 유럽 금융산업 내 점유율이 매우 높고, 주요 산업에서의 영향력 또한 높은 국가 일뿐 아니라, 언어적 장벽이 낮아 세계 주요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해 왔다. 영국에 유입된 해외 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건수는 887건으로 유럽 내에서 가장 많고, 유입액을 기준으로 해도 350억 달러 수준으로 가장 많다. 특히, 영국으로의 FDI 유입액은 2012년 697건에서 887건으로 증가세를 지속해 왔다.

그러나 브렉시트의 영향으로 영국의 금융산업의 위축되고, 수출이 축소되는 등 경제가 침체되면, 영국의 투자 매력도는 크게 위축될 것이다. 브렉시트의 영향으로 이미 파운드화 가치는 크게 절하되었다. 금융시장이 불안하게 되면서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으로의 투자 이동이 나타났고, 파운드화의 가치는 크게 떨어졌다. 영국의 주가지수도 크게 떨어지고, 주가 변동률 또한 크게 상승하면서 영국의 경제적 지위가 흔들리게 되었고, 결국 투자의 매력도도 줄어들게 되었다.

특히, 브렉시트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유럽연합 내 다른 국가들의 추가적인 탈퇴가 진행되고, 영국내 스코틀랜드의 독립투표 문제가 재추진될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영국의 투자대상지로서의 매력은 소실 될 가능성이 높다.



Source: Financial Times,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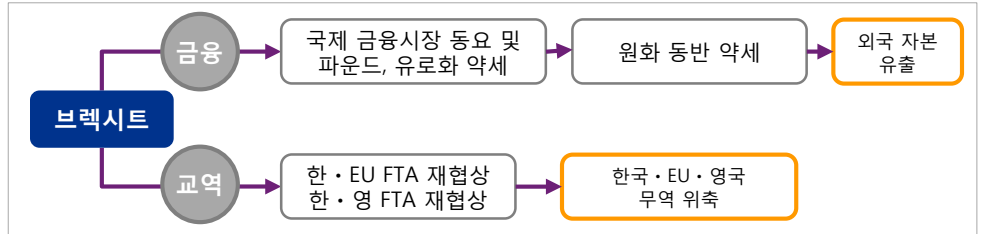
Source: Bloomberg

브렉시트, 잠재적 위험과 기회

브렉시트가 한국경제에 주는 파급 영향

브렉시트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금융과 실물로 구분된다. 그 영향으로 인해 한국의 경제정책 방향 및 기업 경영의사결정 에도 영향을 미칠 것 이다.

< 브렉시트가 한국에 미칠 영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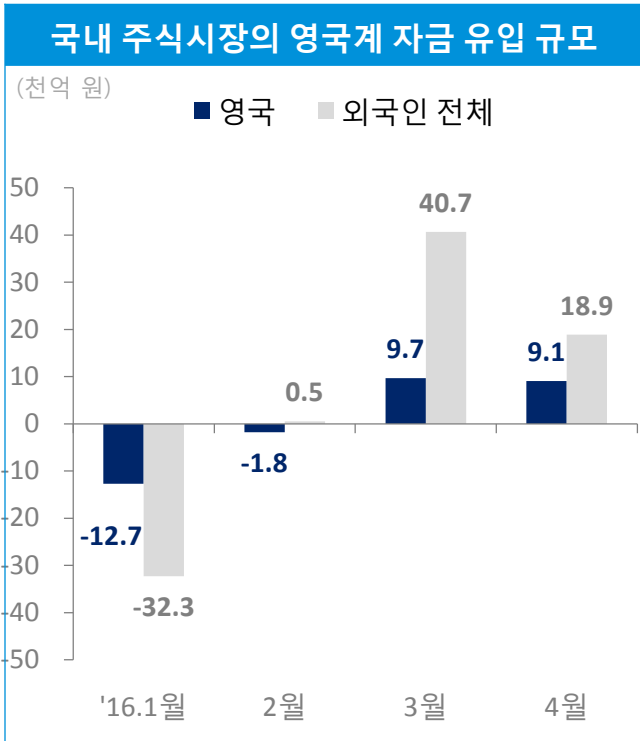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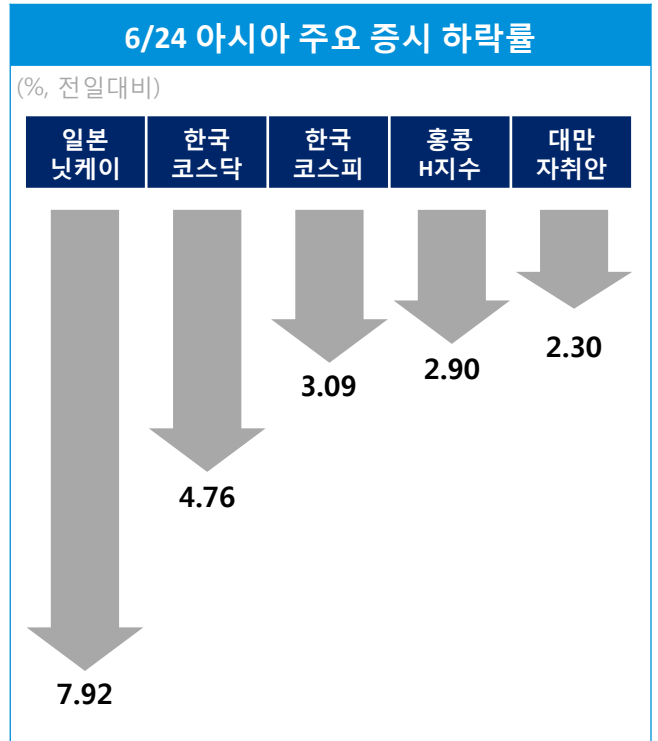
(1)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 브렉시트가 가져온 불확실성은 외국인 자금 유출 및 한국의 금융불안으로 연결될 전망 ”

브렉시트로 인해 국내 금융시장에서 영국계 자금의 직접 유출뿐만 아니라 세계 금융시장 리스크 확대에 따른 해외 자금의 유출이 우려된다. 브렉시트 직후 한국의 증시 하락률은 일본의 경우보다는 약하지만, 홍콩 및 대만에 비하면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브렉시트의 경과 과정에서 중요한 이슈가 더해질 때마다 더 고조되고, 외국인 자금 유출로 인한 한국의 금융불안으로 연결될 것으로 판단된다.



Source: 금융감독원



Source: Bloomberg

브렉시트, 잠재적 위험과 기회

“선박, 자동차, 반도체 등 영구 주력 수출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에 타격이 가해질 것으로 전망”

(2)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브렉시트는 중장기적으로 수출에 악영향을 줌으로써, 실물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영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의 경기침체로 한국의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총 수출액 중 EU와 영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9.8%, 1.5%로,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박, 자동차, 반도체 등 13대 영국 주력 수출품목들을 중심으로 적지 않은 타격이 가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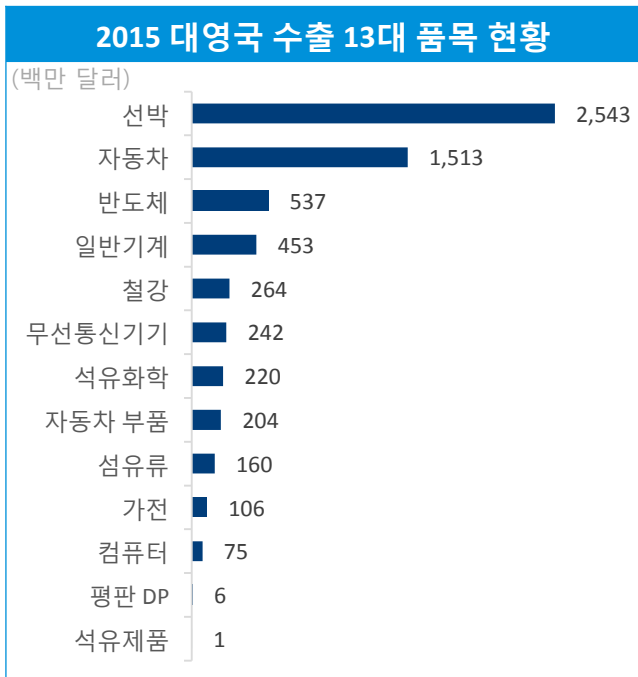
< 대영, 대EU 수출액 비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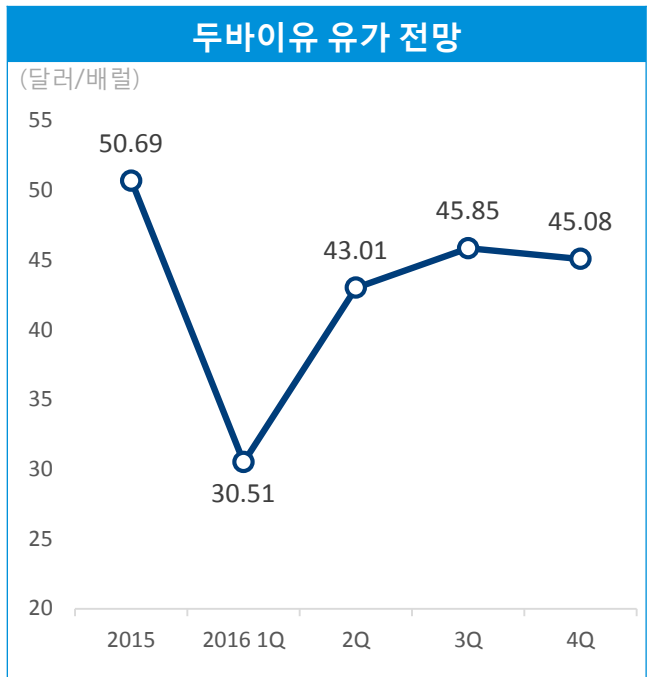
Source: 무역협회 K-Stat

“글로벌 수요 둔화로 인해 국제유가가 하락세로 전환되고, 한국의 물가상승률 하락 및 경기회복 지연으로 이어질 전망”

엔화강세가 이어짐에 따라 일본과 수출경합도가 높은 한국은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요소도 다소 있다. 그러나 브렉시트는 유럽경기 둔화, 신흥국외환 위기, 세계 경기 침체 등으로 연결되면서 글로벌 수요둔화 및 한국의 수출 침체로 나타날 전망이다. 특히, 글로벌 수요 둔화로 인해 국제유가가 다시 하락세로 전환됨에 따라 한국의 물가상승률도 하락하고, 경기회복이 지연될 것으로 판단된다.



Source: 산업통상자원부



Source: 에너지경제연구원

브렉시트, 잠재적 위험과 기회

“수출에 큰 타격을 입는 기업들을 지원하고,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마련”

“브렉시트 이후의 다양한 시나리오 별로 우선적으로 조치해야 할 경제정책의 방향성이 변화 할 전망”

(3) 경제정책에 미치는 영향

브렉시트가 가져온 금융 및 실물경제의 불안한 요소들은 한국의 경제정책 방향에도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브렉시트 직후 긴급 경제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브렉시트 관련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 회의를 진행하였다. 6.28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도 수출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피해기업을 신속히 지원할 계획을 발표했다. 더욱이, 영국진출기업의 기존 거래선 이탈 방지 및 신규바이어 발굴 등을 지원할 것으로 계획했다.

무엇보다도 경제정책 '리스크 관리 강화'에 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브렉시트 관련된 각종 이슈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국제 자본흐름 및 환율 변동성 등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이다.

브렉시트가 영국에 주는 경제적 영향은 특히 3가지 시나리오에 따라 달라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영국이 2년 내 EU와 재협상에 성공할 경우, 한국은 영국과 별도로 FTA 협상을 진행하거나, 한-EU FTA의 교역조건 등을 재논의 하는 등의 경제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브렉시트가 영국에 주는 경제적 영향

시나리오	주요 특징	단기(5년 이내) 영향	중장기(5년 이상) 영향
2년 내 EU와 재협상 성공	불확실성 단기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국과 별도 FTA 협상 진행 대영국 신규투자 정체 영국계 자금의 국내증시 투자 위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국과 FTA 개방수준이 EU-FTA에 못 미칠 경우, 대영국 무역규모 소폭 축소 유럽 겨냥한 투자대상지로서 매력도 회복 영국 금융허브 위상 유지, 금융투자 회복
2년 내 EU와 재협상 실패	영국 위상 약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영 FTA 수립될 때까지, MFN 관세율 적용(한영 교역액의 30%에 대해 관세화) 영국 수요 위축으로 2020년까지 대영 수출 연간 4~7억 달러 이상 감소 전망 기존 대영투자(103억 달러)의 리스크 확대 국내금융시장에서 영국계 자금 급속히 이탈(최근 순유입된 1조 8천억 원 자금 이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영 FTA 실패 시, 무역전환효과 발생하여 대영 무역규모 감소(100억 달러 미만으로 축소) 유럽시장 공략 차원의 영국 투자 철수 국제 금융시장 위험자산 회피 심리 확대, 국내 및 아시아 시장으로의 금융 투자 부진
EU와 재협상 장기화	불확실성 상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영 FTA 수립될 때까지, MFN 관세율 적용(한영 교역액의 30%에 대해 관세화) 불확실성에 따라 신규투자 중단 영국계 투자자금의 부동화 현상 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영국-EU 간 FTA가 모두 체결될 경우 정상 수준의 교역 회복 가능 유럽 교두보로서 영국의 가치 상실 파운드화 보유자산 매각

Source: 각 연구기관 자료 종합

브렉시트, 잠재적 위험과 기회

한국기업의 대응책

(1) 기업 내 RC(Resilience Committee) 구축

“ 환경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 내 RC(Resilience Committee)를 구축해야 ”

브렉시트는 세계경제에 불확실성이라는 물음표를 선사했다. 브렉시트는 국제금융시장이 불안정하고, 환율 변동성이 급등하고, 국제유가 기조가 변화하는 등 다양한 변화를 주었다. 더욱이, 영국 및 유럽의 규제가 변화하고, FTA 협상안을 마련하며, 각국의 경제정책을 변화시키도록 움직였다. 특히, 영국이 EU와 재협상에 성공하는 지 여부에 따라, 영국과 EU의 협상 조건에 따라 그로 인한 파급영향은 달라질 수 있다. EU의 다른 국가들이 추가적인 탈퇴로 이어지거나, 신흥국 자본유출이 빠른 속도로 전개될 경우 기업환경은 더욱 빠르게 변화한다.

환경이 변화하면 기업도 변화해야 한다. 변화하는 환경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기업은 생존하고, 그렇지 않은 기업은 생존할 수 없다. 따라서 기업들은 브렉시트 이후 다양한 환경변화를 진단하기 위한 RC(Resilience Committee)를 구축해야 한다. 예상 시나리오를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환경분석 틀을 마련해야 한다. KPMG Global은 하기의 표와 같이 브렉시트로 인한 파급영향에 대해 대응하기 위한 RC의 환경분석 틀을 제공하였다.

브렉시트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 내 RC(Resilience Committee)의 환경분석 틀

	브렉시트로 인해 시장의 공급 측면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브렉시트로 인해 서비스 수요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경쟁 구도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인적 자원의 조달	자본의 조달	기타 서비스의 조달	기타	영국 시장의 접근성	EU 시장의 접근성	기타 지역 시장의 접근성	기타	유관 시장의 영향	주요 경쟁사의 영향	기타
브렉시트에 따른 자원의 이동	재화의 이동			●	●	●	●		●	●	●
	서비스 자원의 이동		●	●	●	●	●	●	●	●	●
	인적 자원의 이동	●				●	●	●	●	●	●
	자본의 이동		●	●	●	●	●	●	●	●	●
규제 변화에 따른 영향	EU/UK 법률의 변화			●	●	●	●		●	●	●
	EU/UK 규제의 변화		●	●	●	●	●	●	●	●	●
	UK의 세제 변화			●	●	●	●	●	●	●	●
	EU의 세제 변화		●	●	●	●	●	●	●	●	●
	EU/UK 간 무역 조건의 변화	●			●	●	●	●	●	●	●
	EU/UK 외 국가에 대한 세제의 변화		●	●	●	●	●	●	●	●	●
경제적 파급효과	환율	●	●	●	●	●	●	●	●	●	●
	기준 금리			●	●	●	●	●	●	●	●
	경제 성장률		●	●	●	●	●	●	●	●	●
	기타	●			●	●	●	●	●	●	●

Source: KPMG Global

브렉시트, 잠재적 위험과 기회

“ 근로자, 공급자, 비즈니스 모델, 시장 등의 관점에서 브렉시트의 파급영향을 고려해야...”

(2) 브렉시트 대응 체크리스트 확립

기업들은 브렉시트가 미칠 다양한 영향요인을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특히, 영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은 근로자, 공급자, 비즈니스 모델, 시장 등 폭넓은 경영환경과 경제적 파급영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민자가 축소되고, 저임금 노동력이 부족해 질 것이다. 관세 및 환율 등의 변화로 공급라인이 불안해 질 수 있다. 비즈니스 모델에는 불확실성, 규제, 무역협정을 고루 고려하여야 한다. 시장 환경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 브렉시트 관련 기업의 필수 고려사항 >

근로자	공급자	비즈니스 모델	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력 ▪ 근로시간 ▪ 이민 ▪ 연금 ▪ 분배 ▪ HR 프로세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 ▪ 환율 ▪ 공급 망 관리 ▪ 수입 자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확실성 ▪ 정부 예산 ▪ 규제 ▪ 입법 ▪ 보고소요 ▪ 무역협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의 비용 ▪ 규제순응비용 ▪ 공급하는 재화와 서비스 ▪ 데이터 관리 ▪ 데이터 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성장 ▪ 피보험자에게 미치는 영향 ▪ 시장 접근성 ▪ 경쟁 ▪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 ▪ 규제 ▪ 세금 ▪ 자국내 비즈니스 ▪ 무역

Source: KPMG Global

“ 브렉시트의 파급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확립해야...”

기업들은 각 사업환경에 적합한 브렉시트 대응 체크 리스트를 구축하여 잠재적 기회와 리스크를 파악하고보다 효율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체크리스트에는 (1)이슈의 우선순위 선정, (2)모니터링 강화, (3)정치·경제 변화에 대응, (4)규제 변화에 대응, (5)계량적인 진단, (6)기회와 위험 요소 파악을 포괄하고 있다.브렉시트 대응 체크 리스트는 기업들로 하여금 브렉시트의 경과 과정에서 발생할 다양한 환경변화를 면밀히 검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브렉시트 대응 체크리스트

✓ 이슈의 우선 순위 선정	▶	향후 2년간 영국이 EU 탈퇴의 단계적 수순을 밟은 후에 양국의 관계가 정립될 것으로 보임. 이에 잠재적 기회와 리스크를 파악해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함
✓ 모니터링 강화	▶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예상치 못한 시나리오에 대응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정치·경제 변화에 대응	▶	앞으로 변화할 정치적, 경제적 환경에 대응 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함. 변화에 따른 운영 전략과 더불어 인적 자원의 관리, 자금 조달의 문제, 공급망 관리, 경쟁사의 변화, 고객층의 변화 등에 대비해야 함
✓ 규제 변화에 대응	▶	EU 무역 협정 및 규제 변화를 정확히 인지하고 잠재적 기회와 위험 요인에 신속한 대응력이 요구됨
✓ 계량적인 진단	▶	계량적인 전망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정확한 대응 전략이 필요함. 국내외 경제 환경 변화, 수출입 비용의 변화, 금융 시장의 변화, 규제 변화, 인적 자원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적 전략을 수립해야 함
✓ 기회와 위험 요소파악	▶	잠재적 리스크 요인과 기회를 파악하고 각 요인별 예상 파급 효과를 정립해야 함

Source: KPMG Global

브렉시트, 잠재적 위험과 기회

“ 관 세 율 ,
부가가치세 율 및 환율
변화에 대응하라 ”

(3) 영국의 세제변화 및 환율 변화에 대응

첫째, 관세율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 영국이 EU에서 탈퇴함에 따라 영국과 EU간의 교역구조가 비관세에서 관세적용으로 무역환경이 극변하게 된다. 특히, 부과되는 관세는 산업 및 교역 품목에 따라 차별화되어 적용될 것이다. 한국은 한-EU FTA의 교역조건 조정 및 한-영 FTA 추진 등의 중대한 대외정책 이슈에 당면하게 되고, 그 협상 결과에 따라 관세율에 상당한 변화가 야기될 것이다. 따라서 기업들은 변화하는 관세율을 파악하고, 가격 전략 등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부가가치세율의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 브렉시트 이전, 영국은 회원국으로서 EU의 부가세 규제를 받아 왔다. 브렉시트 이후 영국은 부가가치세 율을 하향 조정하여 민간소비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EU Directive로 인해 그 어떤 재화에도 설정 할 수 없었던 면세율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영국을 대상으로 한 소비재 수출기업들은 영국 파운드화 가치 하락 및 구매력 감소라는 부정적 영향과 함께 부가가치세율 인하라는 긍정적 영향도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셋째, 환율 변화에도 대응해야 한다. 기업들은 환율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여 환 위험을 제거해야 한다. 수출기업들이 보유한 현금성 자산의 헷징 능력을 강화하여 환율이 급변동하는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예상치 못한 유가 흐름에 대비하기 위해 상품 선물 시장 등을 활용하여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헷징 전략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부가가치세율(VAT) 변화

영국의 현 VAT	현 EU 부가가치세율	브렉시트 이후 변화 가능 시나리오
표준 세율 Standard rate (SR)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EU 연합의 최소 표준 세율은 15%로 규정되어 있음 EU 회원국의 부가가치세율을 최소 기준을 초과하는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국은 표준 세율을 15% 이하로 설정 할 수 있게 됨 종전과 같이 세율을 유지할 가능성 또한 존재함
할인 세율 Reduced Rate (RR) 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EU 연합의 최소 할인 세율은 5%로 규정되어 있음 EU 내 할인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재화는 엄격히 제한되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국은 표준 세율을 5% 이하로 설정 할 수 있게 됨 영국은 아무런 제약 없이 할인 세율을 정할 수 있음
면세율 Zero rate (ZR)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 EU 부가가치세율 규정에 따라 그 어떤 재화에도 면세율을 적용 할 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국은 아무런 제약 없이 면세율을 정할 수 있음

Source: KPMG Global

브렉시트, 잠재적 위험과 기회

(4) 산업별로 브렉시트의 파급영향에 대응

첫째, 영국을 주요 수출대상국으로 하는 소비재 수출기업의 경우, 파운드화 가치 하락 및 경기 위축 등으로 인한 수출 감소의 가능성을 염두 해 두고 기업경영에 임해야 한다. 영국 이외의 수출대상국으로 판로개척을 시도하거나, 신시장을 개척하는 등의 노력도 필요하다.

“ 브렉시트의 영향이 산업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기업들의 대응 방안도 차별화되어야...”

둘째, 전자제품 및 완성차 등의 내구재 수출기업들은 영국 및 유럽의 경기침체 및 소비심리위축에 대비하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다만, 달러화 강세의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고, 엔화 강세로 인해 일본과 수출경합도가 높은 제품을 중심으로 한국의 가격경쟁력은 상승한다. 따라서 환율 변동을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철강 및 상사 업계는 글로벌 수요둔화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브렉시트의 경과 과정에서 세계 경기둔화로 이어지고, 철강 등의 원자재 수요가 감소되고, 교역량이 줄어들면서 철강 및 상사 업계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철강산업은 원자재 가격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유망산업으로의 진출을 검토할 수 있다. 상사 업계도 대외 여건 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항공 및 여행 기업들은 환율 변동에 따라 특정 국가로의 여행 수요가 확대될 지를 파악하여 항공 항로 변화 및 여행 상품 개발 등의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브렉시트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대영무역

- 대미무역 대비 대영무역 비중이 작아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기 때문에 제한적인 영향
- 한영 FTA 등 대책 마련 필요



전자업계

- 금융 불안과 경기 침체, 소비심리 위축으로 가전제품 판매량 감소 우려
- 영국으로 판매하는 유럽 생산 가전제품 등 별도의 FTA 대책 마련 필요



완성차업계

- 최근 성장세를 보이던 유럽 자동차시장의 수요 감소 전망
- 원달러 환율 상승시 완성차 업계에 가격 경쟁력 상승



철강업계

- 금융시장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 관리 계획 필요
- 단기 환율 변동성 관리 강화 및 수요산업과 철강업에 대한 영향 모니터링 필요



상사업계

- 경기 침체의 심화 가능성
-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대응책 필요



항공업계

- 항공사 운영의 주요 변수인 환율 변동에 영향
- 영국 파운드화 및 유로의 가치하락으로 영국 및 유럽여행 여건 개선

Source: 언론사 종합



삼성KPMG 경제연구원

김범석

원장

T: 02-2112-0770

E: edwardkim@kr.kpmg.com

이광열

상무이사

T: 02-2112-0062

E: kwangryeolyi@kr.kpmg.com

김광석

수석연구원

T: 02-2112-7438

E: gwangsukkim@kr.kpmg.com

조민주

연구원

T: 02-2112-7589

E: minjoocho@kr.kpmg.com

www.kr.kpmg.com

© 2016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The KPMG name and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 KPMG International.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u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